

국힘, 전대 준비 '관리형 비대위' 유력

당선자 이어 중진 간담회 공감대 위원장 5선 이상 중진이 맡을 듯 "혁신형 비대위" ... 낙선자 등 반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적극적인 쇄신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며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 중진급 중 누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며 "당 내의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거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 있지만,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여론 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바뀌어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야,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법안 이견

원내대표 회동 계속 협의키로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기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25분간 만나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그게 전부"라고만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각종 쟁점 안건 관련

논의를 시도했지만, 극명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 안건 협상 여부에 관해 "저쪽(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취재진과 별도 질의응답에서 말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쟁점 안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했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李 회담 첫 실무회동... 날짜·의제 계속 논의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을 열어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전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회동은 40여분간 진

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전날 첫 준비 회동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실 측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원전·방산 등 협의 결실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냉전 종식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확대 정상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으며 루마니아에서도 주요 부처 장관과 참모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서명 순서대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재옥 "영수회담 '25만원 민생지원금' 말고 생산적 의제 다뤄야"

"물가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은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체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

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 채무가 112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제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